

# 위험보도의 위기구축 기제 프레임 분석

식품안전 보도를 중심으로\*

박성희\*\*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본 연구는 식품 안전을 둘러싼 위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 언론이 위험 상황을 위기의 사회 현실로 구축해가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89년 삼양라면 우지파동에서 2005년 김치 기생충 알 검출 사건에 이르는 11개 식품안전 사고를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을 대상으로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 각 프레임은 이루는 장치를 통해 언론이 위기를 구축해가는 양상을 추적했다. 분석에 사용된 프레임은 책임소재, 갈등, 인간적측면의 부각, 경제적 결과, 도덕성 등 다섯 가지 프레임이었으며, 연구 결과 이들 프레임에는 위기 확산, 책임 소재, 갈등 부각 등의 현저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각 프레임을 구성하는 행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대비 구조를 나타냈다. 기사에 등장하는 행위의 주체인 식품업자, 정부 및 해당관청, 소비자, 전문가 등은 이러한 갈등, 혹은 대비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틀짓기되며 위험의 상황을 확산, 증폭 시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위기의 사회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위험보도, 위기구축, 뉴스 프레임, 식품안전보도, 위험커뮤니케이션

## 1. 문제의 제기

매일 먹는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유해한 물질이라는 보도는 ‘일상 밖의 사건’과 달리 ‘일상 속의 독(毒)’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식탁을 위협하는 소식은 예외 없는 ‘나와 가족의 일’이며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특성화기반조성사업단 지원논문임.

\*\* shpark1@ewha.ac.kr

문제이기 때문이다. 뉴스를 접한 소비자가 식품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위험지각이 위기의 현실 구축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언론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이 논문은 뉴스의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식품안전보도를 둘러싼 언론의 위기 구축 과정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2004년 11월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사고에 대한 인지도가 식품안전 체감지수로 이어지고, 체감의 정도가 다시 향후 섭취에 대한 행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사고에 대한 인지는 대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식약청이 산출한 식품안전체감지수(FSSI: Food Safety Sentiment Index)를 토대로 하여, 그 근원에 자리한 언론 보도의 현저성과 프레임 분석을 통해 초기 인지 단계에서 행동 유형의 변화에 이르는 논리적인 연결 고리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위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사고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해당 식품의 섭취 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성인남녀 283명을 대상으로 한 ‘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식품사고는 2004년의 ‘만두파동’으로, 응답자의 87.6%가 기억하고 있었다. 납이 들어간 꽃게, 볼트가 들어간 수입생선에 대한 인지도가 83.1%로 그 다음으로 높았고, 2002년 이물질이 들어간 학교 급식(80.6%), 2002년의 불량고추가루(78.3%), 2004년 페드럼통에 담은 젓갈(68.8%)이 그 뒤를 이었다. 15년 전 사건인 1990년의 공업용 우지라면 파동을 기억하는 응답자도 68%나 되었고, 1995년 발생한 소위 ‘고름우유’사건에 대해서도 51.9%가 기억하고 있었다.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사고의 평균 인지율은 64%로 나타났다. 식품 사고별로 국민이 체감하는 위협의 정도는 식품 사고의 크기, 시점, 섭취 빈도라는 조건에 언론의 보도태도와 강도가 합쳐진 결과이다.

식품에 대한 나쁜 기억들은 해당 식품의 소비행태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만두파동 사건을 기점으로 만두를

많이 먹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6%에서 28.5%로 절반정도 줄어들었고, 포르말린 코팅 번데기, 골뱅이 통조림 사고 이후 섭취빈도가 30.8%에서 15.7%로 역시 절반 정도 떨어졌다. 공업용 우지라면의 섭취 빈도는 50.8%에서 25.0%로 똑 떨어졌다. 응답자의 위기의식이 행동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25.3점에 불과하다. 식품별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식품은 김치(50.4점), 과일(45.6점) 고추장등 장류(45점)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39.3)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안전한 점수를 받은 김치 역시 연구보고서 발간 이후에 발생한 기생충알 검출 사건으로 안전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반면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식품은 건강기능음료(9.8점) 오리고기(12.5점) 선식 등 곡류가공 식품(18.4점)등이었다.

변화하는 소비행태와 함께 이런 불안감 역시 연이은 뉴스보도가 구축한 현실의 반영, 혹은 구축된 현실의 효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험한 식품이라면 당연히 사실 보도를 통해 공중이 건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언론 보도는 특정 식품의 문제를 식생활 전반으로, 소수 비양심적인 업자들의 문제를 업계 전체의 것으로 보도해 실제보다 더 크게 위험을 확산시키고 증폭시켜 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해설하기보다는 동타 위주의 단편적인 사건을 일단 빨리 전해 긴박감을 더함으로써 충격을 증폭시키고, 그에 따르는 이해 당사자들의 공방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소비자들의 판단을 오히려 흐리게 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의도된 오류라기보다는 해당 관청이나 소비자 단체의 발표를 단선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출입처 제도의 한계나 중립적인 언어 사용의 미숙, 화합보다는 갈등을 선호하는 기사가치 등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언론이 구축한 위기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며 일으키는 효과는 지대하다. 문제가 된 식품에 대한 불매와 대체 안전식품의 품귀 현상, 소비자의 집단 패닉 현상은 관련업계의 위축내지 파산 등 경제 산업적인 여파로 이어지고, 식생활 행태를 변화시키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온다. 일상의 건강함을 배반하는 그런 소식들은 단순히 문제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식생활을 변화시

키는데 그치지 않는다. 당국의 허술함,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선의에 대한 배반, 유통구조의 안전망에 대한 회의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키우는데 일조한다. 소비자를 고려한 정확하고 사려 깊은 식품안전보도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소비자가 인지하는 위험의 정도는 그 근원에 자리한 언론보도에 대한 이해의 정도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때, 미디어의 현실구축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사회 교육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89년 우지라면 파동을 다룬 기사에서부터 2005년 기생충 알이 검출된 김치 사건 보도에 이르기 까지 11개 식품안전보도를 분석, 독자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동시에 소비자들의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프레임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도록 한다.

## 2. 이론적 논의

### 1) 뉴스 프레임

언론을 창(窓)에 비유할 때, 창틀(프레임)은 그 창이 비추는 현실을 구성한다. 이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 프레임 이론은 미디어 효과 이론 발달 과정의 네 번째 단계(Scheufele, 1999)에 속하는 사회구성주의 논의의 한 지류이다. 프레임 연구는 상호작용의 맥락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및 언어사회학적 연구, 뉴스 텍스트의 구성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분석 중심의 연구, 사회운동론적 관점의 연구, 예상이론에 기반을 둔 심리학적 연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적 관점의 연구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이준용, 2001).

프레임 이론은 엔트만(Entman, 1993)이 ‘분산적인 개념화(p.51)’라고 부르거나, 아이엔거와 킨더(Iyengar & Kinder, 1987)가 의제설정과 점화효과(프라

이밍)의 복합 개념으로 설명하고, 맥컴스·쇼·위버 등(McCombs·Shaw·Weaver, 1997)이 의제설정 개념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는 등 개념상의 유연성과 모호함을 노정시켜 왔다. 이 같은 개념상의 혼선은 커뮤니케이션학계 내 학문적 지형 속에서 유입되어 서로 다르게 규정돼 활용되어 오면서 빚어진 것이다. 즉 미디어 메시지가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미치는 효과 규명에 주목하는 양적 방법론자와 메시지 자체의 담론적 특징이나 생성과정에 초점을 둔 질적 방법론자 사이의 철학적 입장 차이에 따라 미디어 프레임이 구체적인 진술인지 아니면 내러티브 구성방식이나 프레임 기제인지 학자마다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상의 유연성은 동시에 강점으로 작용하여 미디어가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로서 유용하고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다(송용희, 2005).

아젠다 세팅이론에서 한 단계 확장된 2차 의제설정 이론은 대상이나 이슈의 의미를 구성하는 속성들의 현저성에 주목한다. 매스 미디어가 구성하는 속성 현저성은 공중으로 전이되어 특정 대상이나 이슈를 해석하는 공중의 관점과 판단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프레임 이론과 논리적인 접점을 형성한다. 공중이 언론으로부터 지각하고 인지하는 것은 언론이 사회적 현실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인 대상과 속성들의 현저성에서 비롯된다. 언론은 현저성의 전이를 통해 공중 의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여론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 연구 중 뉴스 내용의 구성방식의 특성과 가치체계 분석에 초점을 맞춘 기틀린(Gitlin, 1981)은 프레임이란 “현실에 대한 인식, 해석, 제시, 선택, 강조, 배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패턴이며, 이 패턴에 따라 상징 조작자가 일상적으로 언어적 또는 영상적 담론을 조직하는 것(p.7)”이라고 보았다. 갠슨 등(Gamson, 1988; Gamson & Lasch, 1983; Gamson & Mogdigliani, 1989)은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프레임이란 뉴스 스토리가 구성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했는데, 프레임 연구 중 이러한 텍스트 분석적 뉴스 프레임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티크만(Tuchman, 1978; 박홍수 역, 1995)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뉴스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나 사회상을 거울처럼 비추는 반영이 아닌

‘구성된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언론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을 사건 자체의 프레임, 사건을 선택하고 기사화하는 네트워크 프레임, 그 기사를 받아들이는 독자들의 인식을 염두에 둔 공적인 프레임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엔트만(Entman, 1993)은 프레임을 핵심어, 문구,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 정보원, 사실이나 판단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주는 문장 등이 존재하거나 부재함으로써 인해 지각된 현실의 형상을 선택한다고 보았다.

아이엔거(Iyengar, 1991)는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레임 효과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시켜 주제적 프레임(thematic frame)과 일화적 프레임(an episodic frame)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 후 뉴스 프레임 연구는 뉴스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 뉴스 프레임이 뉴스 수용자의 뉴스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리 등(Rhee, 1997; Shah, Dornke & Wackman, 1997)의 연구와 수용자의 태도와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프라이스 등(Price, Tewksbury & Powers, 1997)의 연구, 또 수용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켄버그 등(Valkenburg, Semetko & DeVreese, 1999)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는 또 다른 연구(Semetko & Valkenburg, 2000)에서 프레임이 크게 책임소재(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갈등(conflict), 인간적 측면의 부각(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s), 도덕성(morality)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분류는 단일 사안의 사회적 의미를 도출하는데 효용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용호·김용순·한정택, 2004).

뉴스 프레임과 관련된 국내 연구로는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준웅(2001)의 연구가 있고, 역시 갈등 상황에서 행위 유발 사건의 배경, 원인, 결과를 포괄적으로 강조한 김선남(2002)의 연구와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한 비판이나 주체간의 관계에 집중한 양정혜(2001), 박경숙(2002) 등의 연구가 있고, 상황의 극단성과 부정성에 초점을 둔 나미수(2004), 김원용·이동훈(2004)의 연구가 있다. 메타 연구로서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를 연구한 김원용·이동훈(2005)의 연구는 원

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프레임 연구를 종합해 정황, 귀인, 배경, 가치 프레임 등 네 개의 프레임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영호·김용순·한정택(2004)은 한 미 관계에 대한 조선일보, MBC, New York Times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실시, 한국의 경우 일화 중심적 프레임과 주제 중심적 프레임 간의 대립이 아니라 안보 중심적 프레임인가 반미 프레임인가 등 주제 중심적 프레임 내에서의 충돌이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미디어 프레임을 독립변인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택하고자 한다. 언론이 위험을 구축하는 방식, 그리고 그렇게 구성된 현실이 수용자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지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접근법이기 때문이다. 프레임링을 미디어 효과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는(Scheufele, 110) 이 같은 접근방법을 시도한 연구로는 미국 캔자스 주 위치타에서 열린 반낙태 시위 보도를 분석한 팬과 코시키의 1993년 연구와 KAL 격추사건과 이란항공기 추락사건을 다룬 엔트만의 1993년 연구, 아나타 힐과 클라리스 토마스 공방을 보도한 미디어 프레임이 수용자 프레임을 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후앙의 1996년 연구가 있다. 팬과 코시키는 미디어 프레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소로 1) 문장이나 어구, 단어의 배열, 2) 사건의 뉴스가치판단, 3) 주제적 구조, 4) 수사적 구조 등 네 가지를 밝혀냈다. 엔트만은 미디어가 사용하는 다섯 가지 준거 프레임으로 1) 중요도 판단, 2) 행위의 주체, 3) 피해자 적시, 4) 사건의 범주화, 5) 국가적 차원으로의 일반화 등을 지적해냈다. 후앙은 프레임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각각 측정하고 인터뷰를 통해 얻어진 수용자들의 답변과의 상호 연관을 밝혔다. 후앙의 연구결과는 뉴만(Neuman, et al.)의 1992년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미디어가 매우 다른 우선순위로 이슈들을 다룬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 2) 언론의 위험보도와 위기구축의 커뮤니케이션

엄밀히 말하면 식품은 위험물이 아니다. 그러나 식품 위생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으로 소구한다. 언론이

전하는 정보로 인해 일상의 필수품이 피해야 하는 유해물질로 탈바꿈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는 스스로 처한 환경이 오염되었다는 것과 유사한 효과의 위험을 감지한다.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 등을 주요 영역으로 하는 위험보도 관련 개념과 이론을 식품보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실제로 환경 호르몬인 다이옥신 파문이 유럽 대륙을 휩쓸었을 때 벨기에 언론들은 당시 사태를 ‘새로운 체르노빌’(<<조선일보>>, 1999년 6월 7일)이라 부르기도 했다.

대체로 식품 안전보도는 상대적으로 식품의 안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위험보도의 한 유형으로 개념화가 가능하다. 이정춘(1996)이 우리 사회를 ‘선진국형과 후진국형이 어우러진 한국형 재해’와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위험사회’(63쪽)로 규정된 것은 이러한 상황의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다.

‘위험(risk)’의 개념은 ‘위기(crisis)’와 구분된다. 위험은 때로는 ‘위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유해 물질의 특정 농도나 용량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에 있어 유해한 결과가 발생할 확률(probability) 또는 가능성(likelihood)’으로 정의된다(NAS, 1983). 확률, 또는 가능성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위험이란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을 가리킨다. 위험이란 최근 서구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위험사회(risk society)와도 연관된 개념으로, 사회학자인 벡(Beck, 1986)은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고, 와인가르트(Weingart, 1983)는 ‘사회의 과학화’와 ‘과학의 정치화’경향을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으로 보았다. 페로우(Perrow, 1987, 이정춘, 1996에서 재인용)는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 간 지속된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얻어진 부와 풍요의 이면에는 사고와 재해가 일상화되는 경향이 있고, 원자력 관련사고, 수질, 대기, 토양의 오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이 일정한 확률을 갖고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위험 커뮤니케이션’과 유사한 학술적인 용어로 ‘환경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션’ ‘모험 커뮤니케이션’이 사용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위험’ 혹은 ‘위해’란 안전(safety)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자발적(voluntary)



또는 비자발적(involuntary)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발적 위험이란 흡연처럼 개인이나 사회의 어떤 활동이 위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받아들이는 피해인 반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과 같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피해가 비자발적 피해이다. 비자발적 피해는 일차적으로 사회나 국가 관리 하에서 조절되어야 하고, 국민의 피해에 관한 체감도가 자발적 피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자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식품사고는 대표적인 비자발적 피해로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관한 체감 정도는 다른 분야의 체감도보다 훨씬 민감하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

‘위험’이 아직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반면, ‘위기’란 그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한 경우의 상황을 일컫는다. 위험은 다시 전산업사회의 ‘전통적인 위험’(명예상실, 자격상실 등)과, ‘생활위험’(전염병, 사고, 자연재해, 전쟁), 그리고 ‘사회적인 위험’(오존구멍, 숲의 파괴, 공기와 물의 오염, 식료품의 중독성, 전염병, 인구과잉) 등이 있다. 다만 현대 사회의 위험은 더 이상 집단의 가치체계에 의해 보상되기 어려운 소위 ‘사회적 무책임성’에 의해 자연재해와 동일한 성향으로 확대시켰고, 다른 한 편으로는 대부분의 위험이 사회적인 행위의 산물이므로 발전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인 토대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다(이정춘, 71). 위험상황을 위기의 현실로 구축하는 데 언론의 역할을 빼 놓을 수 없다. 위험보도(risk reporting)란 상기한 내용의 사건과 사고, 상황 등을 전하는 언론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위험 보도와 관련된 연구를 한 학자로는 기자들이 이해관계의 양극단에 있는 취재원의 인용구를 땀으로써 사건을 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 윌리스(Willis, 1997), ‘공포(fear)’라는 단어의 사용과 경향을 추적함으로써 뉴스가 위기상황을 구축해가는 현상을 밝힌 알사이드(Altheid, 2002), 커뮤니티 뉴스레터에 실린 HIV 방지 기사가 위험관련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맥알리스터 등(McAlister et al), AIDS에 대한 태도와 위험보도에 대한 주의력이 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밝힌 켄나머와 혼놀드(Kenamer and Honnold, 1995) 등이 있다. 위험보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으로, IMF관련 언론 메시지를 상징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한 장하용(2000)의 연구와 위협보도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이론적으로 접근한 이정춘(1996)의 연구가 있다. 언론의 위기구성 방식이 그 매체의 이데올로기와 관계가 있다는 김혜순(1995)의 연구는 언론이 위협을 보도하는 것뿐 아니라 ‘위기’를 규정하고 구축하는 현상을 조명하고 있다.

페터스(1991)는 언론의 위협보도와 관련, 전문가의 관점과 일반 공중의 시각 사이의 매개 문제와 ‘기득권층’ 전문가들과 이들과 다른 ‘반대 의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식상의 대립을 매개하는 문제가 늘 대두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언론보도는 1) 전문가의 관점과 일반 대중의 효용성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규명하고, 2) 사회적인 조화를 도모하며, 3) 인명 불가침의 원칙을 보도의 근간으로 삼고, 4) 위협 효용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는 기술공학적인 계량주의에서가 아니라 다원적 민주주의의 정치적인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전문가들 사이의 대립이 대중들이 위협에 대해 올바른 수용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경고했다(이정춘, 1996에서 재인용).

위험보도에서 전문가의 존재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도 독특한 특성으로 나타나는데, 위험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를 증폭모델(SARF: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Framework)로 설명한다. 가장 단순한 증폭모델을 제시한 렌(Renn, 1991)은 이 모델의 구성인자로 정보원(과학자, 기관, 이익집단, 목격자), 전달자(미디어, 이익집단, 오피니언리더), 수신자(대중)를 제시하며, 위험 사안이 발생하여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자들의 이해관계나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비해 슬로비치(Slovic, 1987)의 증폭모델은 다소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는 사건, 사건의 특성, 특별한 정보의 해독, 영향력의 전파, 영향력의 형태를 구성요소로 하는 모델을 통해 특정 위험 사안이나 사건이 존재하면 우선 대상 사안에 대한 특성들은 미디어 보도로 이어지며, 이 때 미디어의 강도 높은 보도가 사람들의 위험 인지도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기’는 또한 언론보도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고 있는 상황의 개선에 초점을 둔 공중관계학(PR)으로 확대되어 개념이 정립되어왔다. ‘위기 커뮤니케이션(crisis communication)’이란 따라서 PR전략의 하나로 인식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집필한 편뱅크스(Fearn-Banks, 1992)는 위기커뮤니케이션플랜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PR 실무자들이 위기상황을 완화시키기 위해 미디어, 정부, 소비자와 어떠한 전략을 구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위기를 수용자 입장에서 본 연구로 김영욱·박소훈·차희원(2004)이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귀인성향이 위기를 수용하려는 경향을 높인다는 결과의 논문을 발표했다.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 언론의 식품안전 보도를 ‘위험보도’로 간주하고, 언론이 위험한 상황을 보도하며 특정 프레임을 통해 위기를 구축해가는 사회적 현실 구성의 양상을 추적할 것이다.

### 3. 연구문제와 가설

#### 1) 식품 안전보도의 프레임 장치 및 행위자 현저성

본 연구는 문제가 된 식품의 위험성을 보도하는 언론이 어떤 미디어 프레임을 통해 위험을 전이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언론의 위기구축 프레임을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각종 행위의 주체가 되는 식품 업체와 정부, 소비자등을 삼각 구도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식품의 종류와 발원지, 그로 인한 피해 혹은 위험의 범위가 각각 어떤 프레임 장치와 관련이 되어있는지 알아본다. 이는 앞서 언급한 팬과 코시키의 구조적 요소로서의 문장이나 어구 단어의 배열, 주체의 선정, 엔트만의 행위의 주체 증거 프레임에 주목한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식품 업체와 소비자계, 식품 업체와 정부, 정부와 소비자간 관계의 속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부재하는

특정 내용의 언급이나 강조, 축소, 배제 등을 통해 현실의 특정 측면을 현저하게 드러내 보이는 현실의 재구성 과정을 추적한다. 미디어 프레임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연구는 언론 보도 프레임이 구축되고 현실을 구성해가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Scheufele, 1999). 식품 안전 보도를 위험보도로 접근하고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추출해 위기구축 방식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따라서 위험보도와 위기구축에 각각 주목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언론은 식품사고를 사회적 현실로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프레임 장치를 사용하는가.

가설 1-1. 헤드라인과 본문에서의 용어의 사용, 보도 주제의 선택에서 특정한 현저성을 보일 것이다.

가설 1-2. 사건을 구성하는 각 행위의 주체들의 행위에서 특정한 현저성을 보일 것이다.

## 2) 언론의 위기 구축

‘위험’이 아직 피해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반면, ‘위기’란 그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인지한 이후의 상황을 말한다. 식품 사고 보도에 대한 인지가 해당 식품의 섭취 빈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는 실제 위험이 공중의 인식에 각인되면서 특정한 행위로 이어졌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인지와 행위 사이의 논리적인 연결고리로서 단순히 위험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기의 현실로 구축해가는 언론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레임 장치들 간의 공통점과 현저성을 묶어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영향을 주는 해석적 틀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상기하였듯 기존 연구들은 기자들이 이해관계의 양극단에 있는 취재원의 인용구를 땀으로써 사건을 선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거나(Willis, 1997), 전문가의 관점과 일반 공중의 시각 사이의 매개 문제와 ‘기득권층’ 전문가들과 이들과 다른 ‘반대의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타

나는 인식상의 대립을 매개하는 문제가 늘 대두된다(Peters, 1991)는 식으로 틀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엔트만의 피해자 적시 준거 프레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법을 통한 프레임 구축의 양상을 추적하게 도와줄 것이다. 이와 연관시켜 두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2. 도출된 미디어 프레임 장치들은 어떤 상호관계를 통해 수용자들의 현실 구성에 영향을 주는 위기의식을 구축하는가?

가설 2-1.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중구조를 통해 위기의식을 구축할 것이다.

가설 2-2. 전문가 취재원보다 양극단 취재원의 부각이 두드러질 것이다.

#### 4. 연구대상의 선정 및 연구방법

##### 1) 연구대상의 선정

연구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식품안전지수(FSSI)를 참고해 공중의 인지가 비교적 높은 식품안전사고 중 식품사고 후 식품섭취 빈도가 떨어진 10건의 사건과, 인덱스 개발 이후 발생한 대표적 식품사고로서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기생충 알 김치 사고 등 모두 11건의 식품사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식품사고별 인지율과 사고 전·후의 섭취율은 <표 1>과 같다. 각각의 사고를 한국언론재단 뉴스전문 검색시스템인 KINDS에서 문제가 된 해당 식품을 키워드로 검색, 구체적인 사례수를 파악했다.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사건의 진행과 의견을 포함하도록 발생 기사와 해설 논평이 고루 포함되도록 했다. 각 사고별 KINDS 검색 결과 건수와 분석 대상 기사의 건수는 <표 2>와 같다.

<표 1> 식품사고 인지율 순위와 사고 전후의 섭취율 변화 추이(단위: %)

순위	식품사고	발생연도	사고인지율	사고전섭취율	사고후섭취율
1	불량만두소	2004	87.6	56.0	28.5
2	납 꽃게, 볼트가 들어간 수 입생선	2000	83.1	25.2	19.0
3	불량고추가루	2002	78.3	49.2	31.9
4	페드립통에 보관된 젓갈	2004	68.8	33.1	23.1
5	공업용 우지로 튀긴 라면	1990	68.0	50.8	25.0
6	바퀴벌레가 들어간 피자	2004	60.8	32.0	28.9
7	고름우유	1995	51.9	26.7	20.8
8	포르말린 코팅 번데기와 골 뱅이 통조림	1998	51.6	30.8	15.7
9	이물질이 들어간 빵	2004	49.2	32.8	32.2
10	이물질이 들어간 호빵	2002	32.0	32.2	21.0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서』, 72~75쪽에서 재구성.

<표 2> 연구대상 11개 식품사건별 키워드 검색 KINDS 기사 건수와 분석대상 기사 건수

발생연도	식품사고	키워드 검색 KINDS 기사건수	분석대상 기사건수(괄호 안은 실제 코딩에 사용된 기사건수)
2005	기생충알 김치	221	35(12)
2004	불량만두소	120	20(10)
2004	페드립통 젓갈	99	10(5)
2004	바퀴벌레 피자	29	4(4)
2004	이물질이 들어간 호빵	9	1(1)
2002	불량고추가루	46	5(3)
2002	이물질이 들어간 빵	10	3(3)
2000	납꽃게, 볼트가 들어 간 수입생선	32	6(4)
1998	포르말린 번데기와 골 뱅이 통조림	107	15(7)
1995	고름우유	280	30(8)
1990	공업용 우지라면	123	15(10)
계		1046	134(67)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언론이 위험 식품 보도의 관련 당사자, 즉 문제가 된 음식의 발원지로서의 업자, 해당 관청 및 정부, 소비자, 전문가를 보도하는 경우, 미디어가 그 대상을 정의하거나 또는 두드러지게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서술 방식이나 표현 기법을 사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① 팬과 코시키(1993)가 문장, 어구, 단어, 주제적 구조, 수사적 구조가 프레임에 영향을 준다고 규명한 것에 착안, 기사의 토픽, 취재원, 헤드라인, 텍스트에 나타난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중 측정하고, ② 기존 연구의 프레임 유형 중에서 세메트코와 발켄버그의 2000년 연구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프레임에 위험확산 프레임을 추가, 6개의 프레임을 기초로 하여 분석, 프레임 장치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보았으며, ③ 엔트만(1993)이 지적한 준거프레임 중 행위의 주제, 피해자 적시, 사건의 범주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선행 연구들에서 사용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헤드라인은 뉴스 스토리의 요지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뉴스를 상징적으로 등급화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최진우, 1994) 분석 대상으로 삼았고, 헤드라인 키워드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사의 도입부를 뉴스 틀로 볼 수 있다는 이준웅(2001)의 연구에 따라 도입부를 포함시켰다.

세메트코와 발켄버그는 프레임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프레임들이 크게 ‘책임소재(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갈등(conflict)’, ‘인간적 관심(human interest)’, ‘경제적 결과(economic consequences)’, ‘도덕성(morality)’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책임소재 프레임이란 행위유발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강조하고, 인간적 관심 프레임은 행위 유발 사건의 표현에 있어서 감정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극화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갈등 프레임은 글자 그대로 관련주체간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부각하고, 도덕성 프레임은 행위유발 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사회규범과 가치를 강조한다. 경제적 결과 프레임은 행위유발 사건의 결과에서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위험확산 프레임은 사건의 실제 내용보다 과장시켜 사태의 확산을 암시하는 프레임을 말한다. 위의 프레임을 택한 이유는 식품 사고의 책임소재

와 도덕성,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사건의 극화, 경제적 파장 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각 3개의 질문으로 이뤄진 여섯 개의 프레임틀을 만들어 총 18개의 질문 항목을 작성(<표 3> 참조), 각각의 질문에 대해 해당사항이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로 체크하도록 했다. 실제 코딩 대상 기사는 각 식품사고 별로 고루 분포하도록 하여 식품사고별로 대표성이 있다고 연구자가 판단한 기사들(N=67)로 구성했다. 이는 여러 매체들에 의해 반복되는 동일한 기사의 반복적인 코딩을 지양하기 위한 장치이다.<sup>1)</sup>

## 5. 연구 결과

### 1) 식품 사고 기사의 위험확산

6개 프레임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식품사고 기사의 프레임 분석 결과

프레임	문항	‘예’라고 답한 사례수(N=67)	백분율
책임소재	책임소재가 언급되었는가	36	53.7%
	정부 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27	
	업자 책임론이 언급되었는가	9	
갈등	갈등 내용이 언급되었는가	42	62.7%
	갈등의 당사자가 명시되었는가	5	
	갈등의 양상, 파장이 명시되었는가	34	
인간적 관심*	식품사고에 개인적인 적대감, 감정이 표현된 형용사가 사용되었는가	25	37.3%

1) 코더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는 1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홀스티(Holsti, 1969)의 신뢰도 계산 공식을 이용해 측정하였고, 그 결과 신뢰도는 0.90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건이 의인화되었는가	24	
	선한 사람과 악인의 구분이 있었는가	6	
도덕성	사건의 도덕적 측면이 언급되었는가	17	25.3%
	도덕적 판단을 유도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14	
	사건의 도덕적 심각성을 일깨우는 언급이 있었는가	3	
경제적 결과	사건의 경제적 여파가 언급되었는가	23	34.3%
	경제적 손실, 혹은 손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가	5	
	경제적 여파의 심각성을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5	
위험확산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언급이 있는가	61	91.0%
	유사한 종류의 사건의 언급이 있는가	47	
	위험의 확산을 경고하는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56	

\* 세메트고와 발전버그의 다섯가지 프레임 중 하나인 '인간적 관심 프레임'(Human-interest)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부각이나 사건의 인간적인 측면의 보도를 뜻한다. 국내 언론보도의 경우 사건과 관련된 인물에 초점을 맞춘 기사보다는 관련된 업계와 당국을 의인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위 표는 해당 기사에서 각 프레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언급이나 표현의 사용 유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유사한 사건을 언급하거나, 위험의 확산을 경고하는 위험 확산 프레임이 91%의 기사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기사들에서 발견되는 프레임이 갈등 프레임으로, 62.76%의 기사가 이에 해당했고, 책임 소재 프레임을 사용한 기사가 그 뒤를 이어 53.7%를 차지했다. 주목할 것은 책임소재 프레임을 갖춘 기사들의 75%가 그 책임을 정부와 행정부처에 돌리고 있었다

는 것이다. 인간적 관심 프레임과 경제적 효과 프레임은 전체 기사의 34.3%에서 발견되었고, 도덕성 프레임의 비중이 가장 낮아 25.3%의 기사만이 이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었다.

## 2) 헤드라인, 본문 내용의 표현, 수사 등에서 나타난 현저성

언론은 식품사고를 사회적 현실로 구축하기 위해 어떠한 프레임 장치를 사용하는가에 주목한 연구문제 1의 가설 1-1, 헤드라인과 본문에서의 용어의 사용, 보도 주제의 선택의 현저성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용어의 사용에 주목해 현저성을 추적했다. <표 3>에서는 기사 내용의 언급의 유무만을 추적했다면, <표 4>에서는 각 언급의 구체적인 사례가 명시되어 있다. 표현의 강도, 수사기법의 특징과 성격을 통해 각 프레임 별 현저성을 구성하는 프레임 장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헤드라인과 본문에서 현저성을 나타내는 어구들이 측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표 4> 헤드라인, 본문 내용의 수사 및 표현상 현저성

프레임	헤드라인	본문
위험확산 프레임	“식탁공포” 끝나지 않았다. 대장균에서 쇧가루까지 쓰레기 만두 패닉 쓰레기 만두 충격 전국 확산 장보기도 겁나 불신감 팽배 페드럼통 공급업자 무더기 적발	-만파를 부를 예정이다 -제조업체의 줄파산이 우려된다 -도대체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책임 프레임	식품행정 왜 이러나 당국의 갈팡질팡에 국민들 분노 당국이 앞장선 불량 농·축산물 유통 식탁안전 못 지키고도 할 말은 한다	-안일한 태성을 벗지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부라부라 허용기준을 마련 -행정기관의 행태는 면피주의의 극치 -어느 한 곳에서도 책임지는 움직임이 없다

갈등 프레임	식품안전 일원화, 또 밥그릇 싸움인가 유가공협-파스퇴르 불쾌한 싸움 식약청-인천시 '납꽃계' 폐기처분 책임공방	-대대적인 비방광고를 하고 있다 -진흙탕 싸움 -역공을 시작 -전면전 불사 -심한 내용을 겪고 있다
인간적 관심 프레임	중국산 납꽃계 전량 폐기키로, 파동에 식당가 발길 끊겨 돌 넣은 홍어에 기막혀 불안해하는 시민들	-만두 제조업체는 울상을 짓고 있다 -라면 업계는 수입산 원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를 살까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끼어있다 -유가공업체가 발끈하고 나서
경제적 결과 프레임	일단 문제화 되면 해당기업 명들 어 “회사 망한 뒤 무죄라니...” 멸망한 업체 부도 “후유증 언제까지” 기업 배리기가 소비자 보호? 식당들 “이번엔 기생충김치” 한숨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주었다 -제조업체의 줄도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 업계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품에까지 불뚱이 튈까 걱정하고 있다
도덕성 프레임	업계와 유착, 의도적 기만 가능성 역겨운 고름우유 신뢰 못 받는 식약청 먹거리에 납을 넣다니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일관, 술한 의혹이 제기됐다 -업자들을 과립치병으로 몰았다 -톨루엔 찌꺼기 등을 대충 제거한 뒤

### 3) 행위자 프레임

연구문제 1의 가설 1-2는 각 행위 주체의 현저성에 주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도출된 미디어 프레임을 구성하는 프레임 장치들을 다시 기사에 등장하는 각 취재 대상, 즉 업자, 정부, 소비자, 전문가 별로 나누어 각각의 묘사용어, 보도주제, 표현적 속성, 행위자간의 관계 측면에서 2차로 분석,

위험보도가 위기를 구축해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표 5>는 식품 업자들의 대표적인 프레임은 악덕업자와 피해자 프레임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에 대해서는 무능하고 안일한 정부를 피해 상흔을 좇는 악삭빠른 장사꾼으로, 소비자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 버는 가해자업체로 틀 짓기 되고 있었다. <표 6>은 정부 및 해당관청의 프레임이다. 여기서 정부는 위험을 방관한 죄인, 혹은 무능과 안일로 지새는 집단으로 틀 짓기 되어 있었다. 언론에 묘사된 정부 및 주무부처는 관리 소홀과 무능으로 감독관청으로서 부적격이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불안감 가중시키는 존재로 나타나 있었다. <표 7>은 소비자 프레임이다.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자, 내지는 무지하고 패닉 하는 공중으로 틀 짓기 되어 있었으며, 능동적인 역할이나 현명한 판단의 주체로서의 접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체적인 프레임 장치들은 다음과 같다.

<표 5> 식품 수출입 및 생산업자 미디어 프레임

	돈벌이에 눈 먼 악덕업자	불안한 피해자
은유·비유적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파렴치범</li> <li>-기상천외의 악덕수범</li> <li>-장님 제 닭 잡아먹기</li> <li>-광고를 퍼부어</li> <li>-사업자득</li> <li>-살인행위</li> <li>-폭로 광고를 치고 나가</li> <li>-대책 마련이 너무 무성의해</li> <li>-아무리 돈벌이에 혈안이 됐기로 서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건과 무관하나 제품에까지 불똥이 튈까 걱정</li> <li>-울상을 짓고 있다</li> <li>-농가와 관련된 시민 사회 단체들의 얼굴에 먹구름</li> <li>-동반 피해</li> <li>-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움직임</li> <li>-울분을 터뜨렸다</li> <li>-하소연 하고 있다</li> <li>-사과와 해명도 잇따르고 있다</li> </ul>
보도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임 공방으로 불신감 안겨주는 업계</li> <li>수입식품에 유해첨가물 주입</li> <li>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누명을 쓴 생산자</li> </ul>	

<p>형용사·부사 등 표현적 속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끔찍한 방송 표현을 빌려와</li> <li>-불쾌하고 추악한, 정도를 잃은 논쟁의 끝</li> <li>-가중스런 상흔에 전율을 금하기가 어렵다</li> <li>-얼마나 많은 사람의 체내에 발암물질을 축적시켰는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기 짝이 없다.</li> <li>-만성적인 경영난에 처하는 등</li> </ul>
<p>타(他) 행위자 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對정부: 무능하고 안일한 정부를 피해 상흔을 쫓는 약삭빠른 장사꾼</li> <li>對소비자: 무지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 버는 가해자</li> </ul>

<표 6> 정부 및 해당관청의 미디어 프레임

	위험방관의 죄인	무능과 안일의 행정가
<p>은유·비유적 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계와 유착, 의도적 기만</li> <li>-한술 더 떠</li> <li>-시치미를 떼다</li> <li>-속수무책으로 방치</li> <li>-파문을 덮어두기 급급</li> <li>-난맥상</li> <li>-뿌리 깊은 불신</li> <li>-한 건 주의 행정의 표본</li> <li>-만신창이 누더기 꼴</li> <li>-사후약방문</li> <li>-늑장행정</li> <li>-인면수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 가기 시작한 보사부 및 국립보건원</li> <li>-상식 이하의 행동</li> <li>-소비자들의 혼란은 아랑곳없이 업자를 두둔</li> <li>-강 건너 불로 치부</li> <li>-안일한 타성을 보지 못해</li> <li>-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조치에 그쳤다</li> <li>-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식약청의 자세는 정말 어이가 없다</li> <li>-구제불능</li> <li>-식품행정 하나 개혁하지 못하면서 간판은 '개혁정부'</li> <li>-뒷북행정</li> <li>-실제로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li> </ul>
<p>보도주제</p>	<p>식품업계측 입장 두둔 영세업자에게 생산관리 매뉴얼 만들어 주기도 불량 수입 농산물 까마득히 몰라 정부차원 대책 부재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했으나 뒤늦게 계획 철회 후 해명</p>	
<p>형용사·부사 등 표현적 속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를 소홀히 한 실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li> <li>-냄비식 식품파동 대응책</li> <li>-한심하다 못해 분노마저 금할 수 없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색한 변명 너무 황당하다.</li> <li>-한심하기 짝이 없어 빈축을 샀다.</li> <li>-까마득히 몰랐던 정부</li> <li>-부라부라 허용 기준을 제정,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등의 법석</li> <li>-우리정부의 인식이나 대책이 너무 소홀</li> <li>-국민건강에 치명상을 줄 수도 있는 수입식품까지 거의 규제 없이 들 여와</li> </ul>
타(他) 행위자 와의 관계	對업체 : 관리 소홀과 무능으로 감독관청으로서 부적격 對소비자 : 도움이 안 되고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불안감 가중

<표 7> 소비자의 미디어 프레임

	선익의 피해자	무지하고 패닉현상의 약자
은유 비유적 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들은 입맛까지 잃어버렸다</li> <li>-소비자들의 혼란을 기증</li> <li>-국민들에게 불안감만 증폭</li> <li>-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li> <li>-꼴탕 먹는 결과</li> <li>-민간단체의 급작스런 주장에 마 구 놀라는 사태</li> <li>-'나도 기생충 알을 먹은 게 아닌지' 속이 불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안감이 증폭</li> <li>-이 같은 법석은 물거품처럼 사그 라지어</li> <li>-수입식품 애용자가 왜버려</li> <li>-은 국민이 별생각 없이 먹어</li> <li>-대경실색시키기에 충분</li> <li>-공포에 떨게 되었다</li> <li>-걱정이 태산 같다</li> <li>-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li> </ul>
보도주제	식품 파동, 벌써 품귀현상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판단이 혼란스러운 소비자 허술한 식품 안전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해	
형용사·동사 등 표현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너무 무지하다</li> <li>-원망의 목소리가 높다</li> <li>-가뜩이나 죽을 맛인데 이번 사태로 거덜 나게 생겼다</li> <li>-식당들 한숨</li> </ul>	
타(他) 행위자 와의 관계	對업체: 상흔에 놀아난 불쌍한 피해자 對정부: 보호받지 못하는 딱한 약자	

#### 4) 언론의 위기 구축

##### (1) 각 행위 주체 간 이분법적 프레임

연구문제 2의 가설 2-1은 행위 주체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언론이 이들 각 미디어 프레임을 구성하는 프레임 장치로 식품 위해성의 고의성을 전제로 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색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설정 및 규정, 가해 양상에 대한 고발, 피해자 대응 등을 사용하는 양상을 추적해 <표 8>에 정리했다. 흥미로운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설정만 고정되어 있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 상호 위치를 바꾼다는 사실이다. 위험보도 초창기에는 음식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집중적으로 사태의 가해자 이미지로 보도되고, 사태가 진전되면서 이를 방조한 정부 및 해당관청이 가해자의 위치로 갔다가, 위험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소비자나 언론이 가해자 편에,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피해자의 위치를 각각 차지했다.

<표 8> 피해자 對가해자 프레임

	가해자	피해자
위험확산 프레임	생산업자, 수입업자	소비자
책임 소재 프레임	정부, 해당관청	소비자
갈등 프레임	공방 당사자들	소비자
경제적 여파 프레임	소비자, 언론	생산업자, 수입업자

##### (2) 취재원 활용

연구문제 2의 가설 2-2는 취재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재원은 정보의 속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표 9>에서 보듯, 발생기사는 주로 검·경찰이나 관계 당국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기획·해설기사로 진행되면 서 업계나 소비자의 반응이 추가되었다. 악덕 상훈, 위생이나 관리 소홀 등이

원인인 식품사고의 경우 전문가 그룹을 취재원으로 활용하기보다 일반 소비자의 반응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행위의 주체자로서의 전문가(과학자)들이 기사 안에 거의 부재, 이렇다 할 프레임의 양상을 드러내지 못했다. 따라서 위험보도에서 전문가들의 대답을 부각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위험수용에 장애를 끼친다는 페터스(1992)의 지적은 국내 언론에 적용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전문가 갈등 대신 이해 당사자(업체들)간, 혹은 해당 업체와 시민단체 간, 혹은 업체와 해당관청 사이에서 현저하게 드러난 갈등 프레임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표 9> 식품 사고별 주요 취재원

식품사고	발생기사 주요 취재원	기획-해설기사 취재원
기생충 알 김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청, 업계, 식당, 소비자
불량 만두소	경찰	업계 홍보실, 한국소비자보호원
패드립통 짓갈	검찰	식약청
바퀴벌레 피자	울산 중구청	업계 관계자
이물질이 들어간 호빵	경찰	업계 관계자, 피해 소비자
불량 고춧가루	경찰	식약청, 소비자
이물질이 들어간 빵	경찰	업계 관계자, 피해 소비자
납 꽃게, 볼트가 들어간 수입생선	인천지역 수입업자	검찰, 해양수산부, 수산시장, 전문가
포르말린 번데기와 글뱅이 통조림	검찰, 식약청	피해 소비자, 전문가
고름우유	보사부, 국립보건원	파스퇴르, 유가공협회, 제약회사, 시민의 모임
공업용 우지로 튀긴 라면	검찰	법원, 업계대표, 전문가

## 6.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식품 안전을 둘러싼 위험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이 위기의 사회 현실을 구축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1989년 삼양라면 우지과동에서 2005



년 김치 기생충 알 검출 사건에 이르는 11건의 식품안전 보도를 대상으로 미디어 프레임을 추출하고 프레임 장치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팬과 코시키(1993), 세메트코와 발켄버그(2000), 엔트만(1993) 등의 준거 프레임을 활용, 문장, 어구, 단어, 주제적 구조, 수사적 구조, 취재원, 헤드라인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중 측정하고, 위험확산, 책임소재, 갈등, 도덕성, 경제적 효과, 인간적 관심 등 여섯 가지 프레임을 적용해 분석했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프레임의 현저성을 추적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언론의 위험보도는 위기확산 프레임, 책임 프레임, 갈등 프레임 등의 현저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과 본문에서의 용어의 사용, 보도 주체의 선택에서 사건에 관련된 행위 주체들이 각기 다른 틀 안에서 현저성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즉 기사에 나타난 행위의 주체자인 식품 수출입 및 생산업자는 돈벌이에 눈먼 악덕업자, 불안한 피해자로 틀 짓기 되어 있었으며, 정부 및 해당관청은 위험방관의 죄인, 무능과 안일의 행정가로, 소비자는 선의의 피해자, 혹은 무지하고 패닉 하는 약자로서의 틀 짓기가 현저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이미 도출된 프레임과 행위자간의 관계, 취재원 특성 등에서 위험 상황이 위기의 현실로 구축되어가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술했듯 다양한 틀 짓기를 통해 대중 앞에 노출된 각 행위의 주체들은 이러한 갈등, 혹은 대비 구조의 프레임 안에서 때론 가해자로, 때로는 피해자로 틀 짓기 되며 위험의 상황을 확산시키는 기제로 기능했다. 갈등의 부각은 안전의식을 위협하며, 상반된 이해관계의 취재원의 활용은 식품 선택에 대한 대중의 판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식품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보다, 유해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공방을 부각시키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고 위험을 실제보다 크게 증폭시킨다. 소비자가 식품구매와 섭취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전문적인 정보이다. 이에 비해 “김치 검사결과 식약청-서울시연구원 큰 차이(《동아일보》, 2005.10.10)”, “발암물질 검출 놓고 해양부-양식업계 대립(2005.10.8)”, “경찰-업체 진실공방, 만두과동 누구 말이 맞나(《동아일보》, 2004.6.20)”, “농림부-복지부 이원화 사고 땀 책임전가 급급

(《문화일보》, 2004.8.18)”, “고름우유 논쟁, 유가공업계 반격, 이전투구 전면전(《국민일보》, 1995.10.30)”, “유가공업계 때 아닌 고름우유 논쟁으로 내홍(《세계일보》, 1995.10.31)” 등의 기사는 정보 대신 독자들에게 판단의 부담을 고스란히 넘기는 기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책임의 소재를 대부분 정부 혹은 해당관청으로 돌리는 책임소재 프레임은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야기할 소지가 높다. 우발적이고 단순한 식품 안전사고라도 언론의 특정한 틀 짓기의 프리즘을 통과하면 집단적인 위기의식과 행태의 변화로 표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식품사고 인지 이후의 섭취량이 급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같은 틀짓기의 이유로는 첫째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을 들 수 있다. 최초의 발생기사의 취재원이 대부분 검·경·찰 등 관청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입처에 의존한 기사는 종합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속보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위험을 증폭시킬 개연성이 크다. 주로 검찰, 업계, 소비자 단체 등의 일방적 발표를 단발성 스트레이트로 처리한 기사는 단지는 파장에 비해 정보의 완결성이 떨어진다. 둘째, 글쓰기 원칙에서의 전문성 부족도 원인이 된다. 균형적이고 중립적 단어의 사용이라는 저널리즘 글쓰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기자와 편집자의 주관성 개입의 소지를 높여 의도되지 않은 틀의 현저성을 부각시킬 개연성이 크다. 셋째, 보도시점을 선택하는데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것은 위험의 개연성을 위기로 촉발하거나, 실제 진행상황을 과장 전달하게 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 즉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식품 안전성 의혹 보도, 업자의 주장을 담은 ‘설익은 보도’는 정확한 정보의 부재 상태에서 소비자들의 위기의식만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

위의 프레임을 지닌 언론의 보도는 특정 식품 안전의 문제를 종국에는 식탁 전체로, 일부 악덕업자의 문제를 업계 전체로 확대 해석, 불안을 가중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다. ‘쓰레기 만두’ 파동과 기생충 알 김치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문제가 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사이의 구분이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업체가 나오고 소비자들 역시 정보 부재의

혼란을 겪어야 했다. “멀쩡한 영세업체 줄도산 우려(《한국일보》, 2005.11.3)”, “잇따른 식품파동, 식품시장 강타(《내일신문》, 2004.6.11)”, “못 믿는다 수입식품, 이것이 문제다 시리즈(《동아일보》, 1990.12)”, “만두 이어 라면수프... 불량식품의 끝은(《동아일보》, 2004.6.10)” 등의 기사는 소비자에게 식탁 전체가 오염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어 위험을 위기로 고조시키기 쉽다.

따라서 현재의 식품안전보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위의 프레임 분석으로 드러난 피해자·가해자 양자구도나 지나친 갈등 및 위험 확산 기제를 지양하고 소비자를 의식 있는 주체로 간주한 통합적 보도와 위험의 종류와 크기를 정확하게 알리는 과학정밀 보도로 실제적 진실에 가까운 사회현실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Ⅰ 참고문헌

- 김동규 (2002). 한국언론의 위기보도, 그 실상과 과제: 재난, 전쟁, 테러 및 갈등보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5호.
- 김영욱·박소훈·차희원 (2004). 한국인의 집단주의 성향과 귀인 성향, 그리고 위기 커뮤니케이션 수용 간의 관련성.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271~394.
- 김용호·김용순·한정택 (2004). 한미 관계에 대한 미디어 보도분석: 조선일보, MBC, New York Times 보도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4호, 67~106.
- 김원용 (1991). 위기보도 분석: 걸프전 보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32호.
- 김원용·이동훈 (2004). 신문의 보도 프레임 형성과 뉴스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351~380.
- \_\_\_\_\_ (2005). 언론보도의 프레임 유형화 연구: 국내 원자력 관련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6호, 166~525.
- 김혜순 (1994). 매체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시론적 탐색: 언론의 ‘위기’ 구성과 관리방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34호, 41~86.

- 송용희 (2005). 미디어, 프레임, 현실구성: 미디어 프레임 연구의 과제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고 『프로그램/텍스트』, 제13호.
- 송해룡·김원제·조항민 (2005). 과학기술 위험보도에 관한 수용자 인식연구: GMO (유전자 변형식품)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105~128.
- 유세경 (1998).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해외언론 보도경향과 국가이미지. 『홍보학 연구』, 2호.
-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37호, 62~91.
- 이준용 (2002). 갈등적 이슈에 대한 뉴스 프레임 구성방식이 의견형성에 미치는 영향 내러티브 해석모형의 경험적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1호, 441~480.
- 이창호 (2004). 뉴욕타임즈, 아랍뉴스, 중동타임스의 이라크전쟁 보도 비교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84~109.
- 장하용 (2000). 언론 메시지 분석의 새로운 접근: 경제위기 담론의 상징 네트워크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4호, 244~266.
- 정재철 (2004). 한국신문의 유전자 연구 프레임 비교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5호, 135~197.
- 『조선일보』 (1999.6.7). 45판 03면 종합기획, 연재.
- 최낙진 (2004).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핵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27호, 283~316.
- 최진우 (1994). 『신문편집제작론』, 대광문화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식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 유형에 대한 조사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ltheide, D. (2002). *Creating Fear: News and the Construction of Crisi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Beck, U. (1992). *Risk Society*. London: Sage.
- Entman, R. M. (1991). Framing U.S. coverage of international news: Contrasts in narratives of the KAL and Iran air incidents. *Journal of Communication*, 41(4), 6~27.

- \_\_\_\_\_ (1993). Framing: Towards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4), 51~58.
- Entman, R. M. & Rojecki, A. (1993). Freezing out the public: Elite and media framing of the U.S. antinuclear movement. *Political Communication*, 10, 155~173.
- Fern-Banks, K. (1996). *Crisis Communication: A Casebook Approa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 Gamson, W. A. (1988). A constructionist approach to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Symbolic Interaction*, 11, 161~174.
- Gamson, W. A. & Lasch, K. E. (1983). The political culture of social welfare policy. In S. Spiro and E. Yuchtman-Yaar (Eds.). *Evaluating the welfare state: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 (pp.397~415). New York: Academic Press.
- Holsti, O.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MA: Addison-Wesley.
- Iyengar, S. (1987). Television news and citizens' explanations of national affai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 815~831.
- \_\_\_\_\_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Iyengar, S. & Kinder, D. R. (1987). *News that matters: Television and American opin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nnamer, J. D., J. A. Honnold. (1995). Attitude Toward Homosexuality and Attention to News about Aid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2, No.2, 322~335.
- McAlister, A., Johnson, W., Gunther-Grey, C., Fishbein, M., Higgins, D., O'Reilly K., and the AIDS Community Demonstration Projects. Behavioral Journalism for HIV Prevention: Community Newsletters Influence Risk-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77, No.1, 143~159.
- McCombs, M., Shaw, D. L. & Weaver, D. (1997).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7.
-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 Price & Tewksbury, D. (1997). News values and public opinion: A theoretical account of media priming and framing. In G. Barnett & F. J. Boster (Eds.). *Progress in the communication sciences* (pp.173~212). Greenwich, CT: Ablex.
- Renn, O. (1991). Risk communication and 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in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ed. R. E. Kaspersen and P. J. M. Stallon), 287~323, Kluwer: Dordrecht.
- Rhee, J. W. (1997). Strategy and issue frames in election campaign coverage: A social cognitive account of framing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7, 26~48.
- Scheufele, A. (1999, Winter).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103~122.
- Semetko, Holli A. & Valkenburg, Patti M (2000). Framing European politics: A content analysis of press and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93~109.
- Shah, Dhavan V., Domke, David & Wackman, Daniel B. (1997). Values and the vote: Linking issue interpretation to the process of candidate choic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4(2), 357~387.
- Slovic, P. (1986). Informing and educating the public about risk. *Risk Analysis*, 4, 403~415.
- Swain, K. A. (2003). Proximity and Power Factors in Western Coverage of the Sub-Saharan AIDS Crisi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80, No.1, 145~165.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박홍수 역 (1995). 『메이킹 뉴스: 현대사회와 현실의 재구성 연구』. 서울: 나남.
- Valkenburg, Patti M., Semetko, Holli A. & De Vreese, Claes H. (1999). The effects of news frames on readers' thoughts and recall. *Communication Research*, 26(5), 500~569.
- Willis, J. & A. Okunade. (1997) Reporting on Risks: *The Practice and Ethics of Health and Safety Communication*. Westport, CT & London: Praeger.

(최초 투고 2006.6.1, 최종 원고 제출 2006.7.14)

## **Frame Analysis on Risk Reporting** Food Safety Reports from 1989 to 2005

Sung-Hee Park

Professor

School of Media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This frame analysis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process by which the Korean press constructs crisis as social reality through a series of risk reporting on food safety. Based on the FSSI(Food Safety Sentiment Index) developed by KIHASA(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1 cases of food safety reports from 1989 to 2005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KINDS) and analyzed to yield the following salient features: risk diffusion fram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rame; conflict frame. It was observed that the press exhibited a tendency to approach the food safety incidents from a bi-polarized perspective, amplifying dichotomy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scientific, or environmental hazards that require precise and synthesized information for resolution. This occupational habit of attributing status to agents of news was also found to contribute towards construction of crisis as social reality.

Key words: risk reporting, news frame, food safety, crisis construction